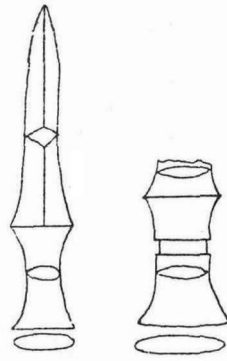


는 것으로 劍身은 橫斷面 菱形
을 하였고 鋒先과 兩刃의 날이
銳利하다. 柄部는 一段 柄式이며
柄部 橫斷面은 杏仁形 을 하
였다.

(2) 二段柄式石劍(第二圖(2)) 一
個



綠色 粘板岩의 磨製石劍인즉 잘
갈아서 光澤이 나며 아름다운 綠
色을 나타내고 있다. 劍身一部가
부러져 나가고 柄部 亦是 부러졌
다. 現存長이 一四·八cm 인데 劍
身殘部는 不過 三·三cm 로 兩刃

을 이루었고 柄部는 一·五cm 로 二段柄式으로 되었고 柄底는 八cm 로 相
當히 큰 石劍이었던 것으로 推測되는데 劍身, 柄部 多같이 橫斷面杏仁
形 으로 되어 있다.

(3) 有莖式柳葉形石鏃(第二圖(3)) 一個

灰黑色 粘板岩의 磨製로 鏃身은 陵線이 솟아 橫斷面 菱形 으로 되
었고 陵線은 鏃身과 莖部와의 接한 곳에서 그치고 莖部는 橫斷面長方形
 으로 되었다. 總長 一一·七cm 鏃身長 一〇·二cm 莖長 二·五cm 鏃
身部가 莖部보다 훨씬 길고 그 모습 멋있게 되어 儀仗品으로 形態上 有
莖式柳葉形石鏃이라 하였다.

(4) 有柄式柳葉形石鏃(第二圖(4)) 一個 灰黑色 粘板岩의 磨製로 여러 토막
으로 부러졌은즉 이를 모아 測定한 것이 現存長 六·四cm 로 前者와 같
은 手法이나 前者 有莖式柳葉形石鏃에 對하여 이는 有柄式柳葉形石鏃
이라 하겠다.

梁山彌陀庵의 石佛立像

鄭 永 鎬

梁山郡熊上面 召周里 千聖山彌陀庵 ①에 石佛이 一軀 遺存하는데 지
난 一月 洪思俊氏와 함께 調査하였던 바 그 樣式이나 手法 등이 古調하
고 優秀하기에 貴重한 資料로서 紹介하려 한다.

佛像은 天然岩窟內에 安置되었는데 入口(徑約二·六m의 洞穴)로 부
터 約九m 되는 곳에 四階石壇(層高 一四九cm)을 마련하였으며 그 後方
은 長三·四m의 窟이 連해있다.

光背와 蓮花臺座等 全體를 單一石으로 彫刻하였고 半肉彫의 正面直立
한 說法印의 阿彌陀如來像(總高 一一〇五cm)인데 原位置인 本尊으로서 庵
名도 여기에서 由來된 듯하다.

佛像의 高 一四九cm로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는 어
깨워지지 않게 느러졌으며 三道가 있으나 白毫는 없다. 通肩한 天衣는
圓弧를 그 으면서 두 어깨로부터 流麗하게 全身을 감쌌으며 兩腕을 걸쳐
내려진 衣端은 양옆
으로 펼쳐있고 胸前
에는 裙衣의 結帶가
보인다.

手印은 左手를 垂
下外撐하였으며 右
手는 胸部에 대고 母
指와 人指를 接한 說
法印이다. 兩足은 들
어났는데 足指 등이
肉重하며 鈍厚하다.



光背는 舟形의 擧身光인데 上面이 內曲되었고 內外二重圓圈으로 頭光을 나타냈으며 여기서 左右側에 等行二組線을 내려 身光을 表現하였다. 頭光에는 重瓣蓮花紋을 彫刻하였고 內外二重圓圈 사이에는 子房이 있는 四葉紋을 浮彫하였으며 身光雙線사이에 同一한 花紋을 左右八瓣式 彫刻하였는데 上下가 모두 整然하다. 또 光背周緣에는 雲紋과 火焰紋으로 裝飾하고 있다.

臺座는 四角形의 下臺石에 圓形蓮座를 놓았는데 下臺石의 左, 右, 前三面에는 各二區씩의 眼象을 새겼으며 그 上面에 圓形과 四角形의 「물디」를 刻出하였다. 上臺石은 다시 上, 下二層으로 區劃되고 伏蓮을 彫刻하였는데 竿石은 없다. 伏蓮은 넓은 單瓣이며 仰蓮은 蓮蕾紋이 重疊되었고 上, 下 各蓮瓣內에는 귀꽃 모양의 彫飾이 있어 特히 注目되었다.

花崗石製의 刻面에는 곳곳에 綠色의 이끼가 보이며 거의 純白이나 이것은 오랜 歲月을 두고 窟內에서 雨露를 맞지 않았던 탓으로 보인다. 이렇듯 全體가 單一石으로 造成된 立佛로서의 類例는 甘山寺, 石造阿彌陀彌勒兩像^②에서 볼 수 있는 바로 光背 立像 衣紋 手印까지의 彫刻이 同一한 手法으로서 같은 樣式系列에 屬한다 할 것이다. 特히 甘山寺石佛에 는 銘文(七一九年AD)이 있어 同系인 此佛의 年代推定이 注目되는데 樣式上으로도 彫法 등으로 미루어 보아 羅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佛肩幅 四七cm 胸幅 二七cm 光背厚 二九cm 廣幅 九三cm 下臺石 高二二cm 下臺石 前面幅 四cm 側面幅 四五cm 上臺石(蓮花臺) 高二七cm 徑五五cm 佛像肉刻厚 一八cm

註

① 釜山發→梁山郡西倉을 經由하는 蔚山直行터스를 利用→途中 西倉里에서 下車하여 徒步로 約二時間半(八km) 西쪽의 千聖山 거리의 上峰에 오르면 彌陀庵이 있고 이곳에서 다시 約八km 西行하여 數峴을 넘으면 內院寺(本誌第三卷第一號...抽稿에 이르게 된다.

② 國立博物館所藏(景福宮內 舊館)

資 料

◎ 感恩寺址鬼面瓦(寫眞)

昨年 九月頃 寺址東南 高臺下の 畚中에서 發見된 것이다. 下緣端이 缺한 外는 完全한데 灰白色의 粗土로서 頂部는 緩曲되었으며 周緣에는 雲文과 連珠文이 있고 面部는 高影 眉間에 圓孔이 있다. (二一cm × 二二cm 厚七cm) (黃壽永)

◎ 新羅圓形仰花二例

모두 蔚山郡 三南面 作洞部落山峴의 廢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바 그 중 完形의 一例는 最近에 釜山 東亞大學 博物館에 新收되었다. 이것은 徑三五cm 高一五cm의 砂岩으로서 周緣에 八個의 突起가 있어 座佛 等이 彫刻되었으며 中央에 竿孔(徑六·五cm)이 있다. 他一도 圓形砂岩으로 半片뿐인데 彫刻은 磨損되었으나 前者와 同式的 것으로

